

프랑스 : 일자리 보고서 2030의 고용 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이준용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23년 7월 26일 프랑스 정부는 「일자리 보고서 2030(Les métiers en 2030)」을 발표하고 향후 10년 가장 많이 채용될 직업군과 특정 직종에서 발생할 인력부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프랑스의 보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고, 향후 노동시장을 예측하는 작업의 기반이 될 거시경제적 추론은 더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 또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국제정세는 프랑스 노동시장에 변화를 야기하며 이러한 변화가 국제 무역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목격되고 있다.

「일자리 보고서 2030」은 고용과 관련 다양한 주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노동을 둘러싼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민간부문의 고용 관계자 및 컨설팅 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업의 인력 요구사항에 대한 기존 분석을 보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정년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용 수요와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고려해 매년 80만 명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채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원해야 할 일자리가 실제로 창출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실제로 직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해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통상적으로 목격되는 것은 노동자의 이직이나, 청년의 첫 노동시장 진입, 실업자의 구직,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이민자 계층의 일자리 제안 수용 등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유입과 유출을 산업 부문별, 직종별, 지역별로 분석해 보고서에 담았다.

한편 이러한 분석은 다양한 직종에서 예상되는 채용 수요와 커리어를 시작하는 청년층의 잠

채적 풀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잠재적 불균형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종은 아니지만 청소부, 가사도우미, 간병인, 중장비 건설노동자 등 인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거나 노동력의 과잉 공급이 있는 일부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다. 노동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France Travail, 지역별 직업훈련 담당 기관, 민간기업 및 노동조합은 협력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고용 관련 평가와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예측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일자리 보고서 2030」은 2030년까지의 예측 데이터를 10년 단위로 제공한다. 10년 후의 불확실성은 1~2년 후의 불확실성보다 더 크지만 직업을 선택하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년 이상의 가시성을 필요로 한다. 보고서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부문별 모델을 사용하고 해당 부문의 활동 증가를 통해 특정 직종에서 필요한 채용 수요를 추론하기 때문에, 건설 관리 또는 건축 사업에 얼마나 많은 추가 공석이 생겨날지 예측할 수 있다.

2015년 4월 28일 발행된 「일자리 보고서 2022」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을 더욱 상세하게 자료화하고 정량화한 점이다. 또한 2023년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의 예측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전통적인 직업 분류를 넘어 향후 노동시장에서 기대되는 기술 및 학제 간 연구에 대한 전망 분석을 포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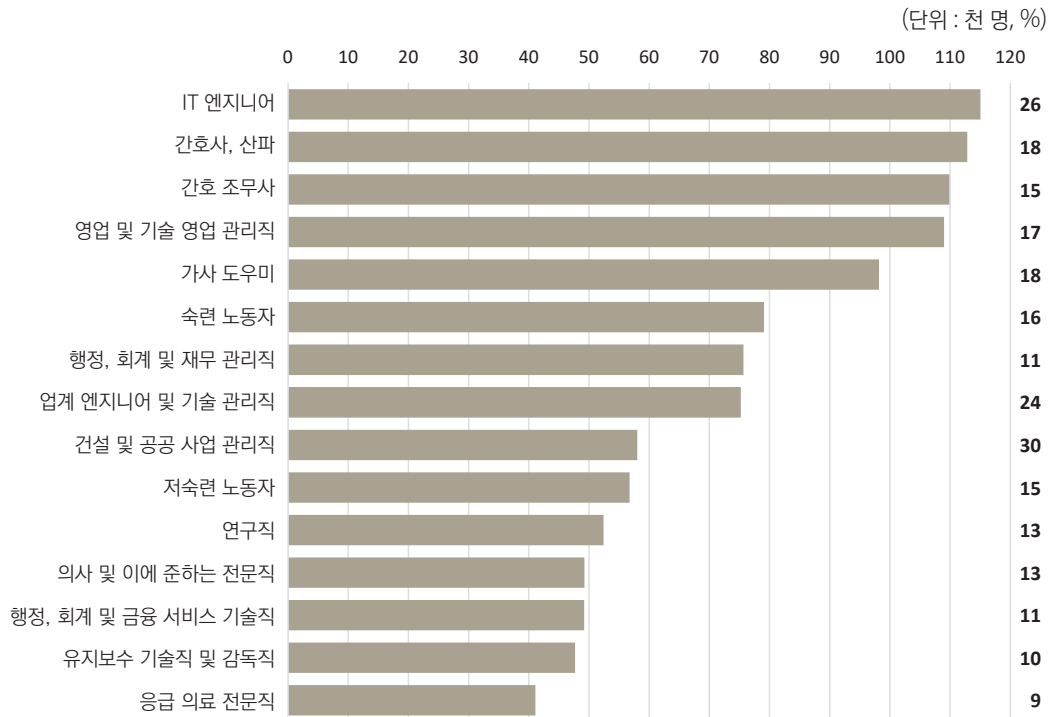
■ 민간기업 서비스 및 의료보건 분야의 급속한 성장

「일자리 보고서 2030」을 토대로 2023~2030년까지의 노동시장과 고용의 재구성을 통해 주요 부문별 추세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업 부문 고용은 2023~2030년 사이에 국가 전체 고용과 동일한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 대상 서비스, 교육, 보건 및 사회 부문 서비스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보건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보건 및 디지털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호텔업과 요식업, 소매업, 엔터테인먼트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경제활동과 운송업에서는 이전보다 더 적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와 유럽의 고용정책은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산업 의존도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목격되고 있다. 저탄소 전환에 따른 에너지 효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투자가 증가하면서 건설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9~2019년 사이에 건설업에서는 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10년에 걸친 하락세가 있었고, 이후 2017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업을 포함하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업 부가가치는 2019~2030년 동안 다른 경제 부문과 함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일자리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전체 고용에서 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임직직, 컨설팅, 유통 등 아웃소싱을 포함한 고용은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그 추세는 이전 10년보다 비교적 완만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웃소싱

[그림 1] 2019~2030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군



자료 :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Les métiers en 2030 : projections France Stratégie/Dares, à partir des enquêtes Emploi”, <https://www.insee.fr/> (2023.7.26).

이 둔화하고 2010년대 이후 정부가 산업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공공정책의 장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이나 IT 제품 산업 등 전문 분야와 저탄소 전환의 핵심 활동이 될 운송장비 산업에 다시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신흥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기술 분야, 가령 고무 플라스틱 및 광물 제품 제조업과 금속 공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장비 유지 및 보수 산업과, 공공기관, 농업 부문에서의 채용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건설노동자, 의료계, 소매업, 금융 및 보험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채용이 있을 직종은 IT 엔지니어, 간호사, 간병 보조원, 영업 부문으로 각각 11만~11만 5천 개로 집계됐으며, 그 뒤를 이어 가사도우미가 10만 명, 숙련 노동자 8만 명, 행정 및 금융 서비스 관리직, 기술 엔지니어 및 기술 관리직이 각각 7만 5천 명이다.¹⁾ 「일자리 보고서 2030」은 특히 건설 관리자직이 6만 명, 연구직 5만 명 등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5개 직업군에 주목했다.

■ 대학 학위 소지자 대상 180만 명 추가 고용

일자리 창출은 계속해서 대학교육을 마친 청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2030년에는 일자리 둘 중 하나를 대학 학위 소지자가 차지하게 된다. 2023년 43%에서 2030년 47%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차지하는 일자리는 180만 개가 창출된다. 반면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는 약 8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학위 취득을 필수로 한 고용의 40%는 법률, 회계 및 경영 부문, 행정 및 지원 서비스, 무역 등 3개 부문에 집중될 것이고, 각 부문에서 20만~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그다음으로는 IT, 건설업, 보건, 숙박업과 요식업,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관련, 연구 부문에서 총 8만~15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역, 숙박업 및 요식업, 행정 및 지원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관련, 건설업에서 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수 증가에 가장

1)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Les métiers en 2030 : projections France Stratégie/Dares, à partir des enquêtes Emploi”, <https://www.insee.fr/> (2023.7.26).

크게 기여하는 것은 채용된 청년층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이 상승하는 추세에 의한 것이라 보았고, 해당 부문 관련 대학 졸업자 수가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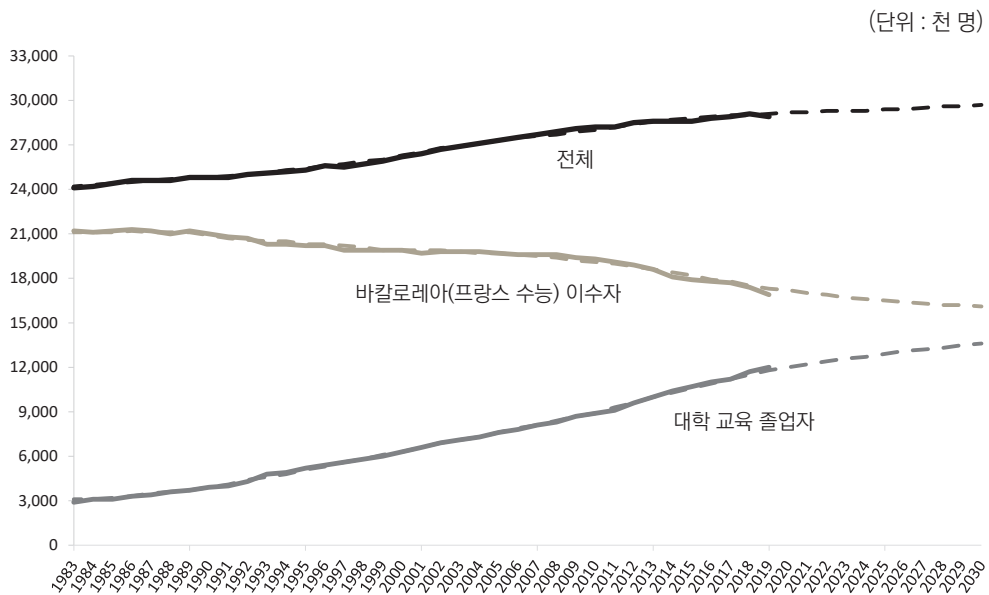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의 경우, 건설업계의 특정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9~2030년까지 약 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보건 업계에서는 주로 환자 치료나 노약자 돌봄 분야에서 대학 학위가 없는 인력으로 채워지는 일자리가 약 12만 개 창출될 예정이다.

■ 노동 인구 변화에 대한 가정

「일자리 보고서 2030」은 국립통계청(INSEE)의 2016년 인구수 전망과 2017년 노동 인구 전망에 근거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 인구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2030년 노동 인구는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약 60만 명 증가할 것으

[그림 2] 1983-2030년 학위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자료 :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Les métiers en 2030: projections France Stratégie/Dares, à partir des enquêtes Emploi”, <https://www.insee.fr/> (2023.7.26).

로 보았다. 첫째, 연이은 연금 개혁과 1960~1980년대 대학 졸업자 비율의 증가로 인해 해당 인구는 은퇴를 미루고 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다. 둘째, 이전 세대 대비 대학 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위 소지자들은 혜택을 더 받고 실업에 덜 노출되어 노동시장에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림 2]와 같이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대학 학위 소지자는 2030년 노동 인구의 46%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2019년 기준 41%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반면 2019~2030년 남성과 여성의 노동 참여율 격차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 채용 수요와 잠재적 불균형 사례

국가 차원의 고용전망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채용 수요 또한 특정 부문의 경제활동의 역동성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대체 일자리도 추가된다. 한편 직종별, 지역별 채용 수요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흐름과 비교하여 잠재적인 불균형이 목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보고서 2030」은 고용전망 및 인구 통계를 감안하여 프랑스에 위치한 13개 대도시 지역을 직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과거에 관찰된 지역별 추세와 현재 예상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지만, 지역별 정책이나 일부 지역에서 구인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주민 노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시장은 지역별로 불균등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정년 은퇴로 예상되는 채용 수요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층으로의 노동력 대체가 가능한 일드프랑스와 오드프랑스를 제외한 타 지역 및 부서에서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고령 인구수보다 전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10년 동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직종(자동차 운전)이나 고용 측면에서 변화가 큰 직종(영업 및 기술 영업 관리자)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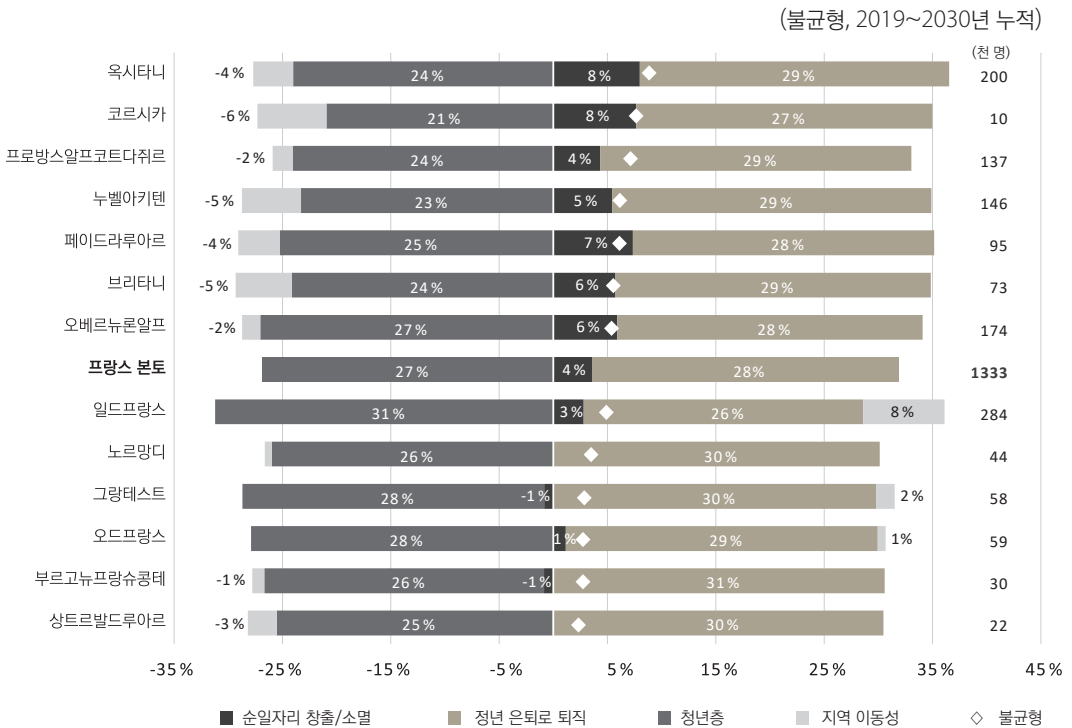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는 한 지역의 일자리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안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고, 일드프랑스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 이탈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구인난이 가중될 수 있다.

■ 구체적인 지역별 고용 전망과 구인난

「일자리 보고서 2030」은 국가 차원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채용 수요의 5%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차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역과 관계없이 정년 은퇴하는 인구로 인해 채용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퇴사율은 지역 고용의 26%에서 31%에 이르는 등 대체적으로 모든 지역이 균일하다.²⁾

반면 채워지지 않은 직종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별 노동시장의 역동성 차이와 지역별 특색 때문이다. 프랑스 서부 및 남부 지역은 고용 측면에서 비교적 역동적이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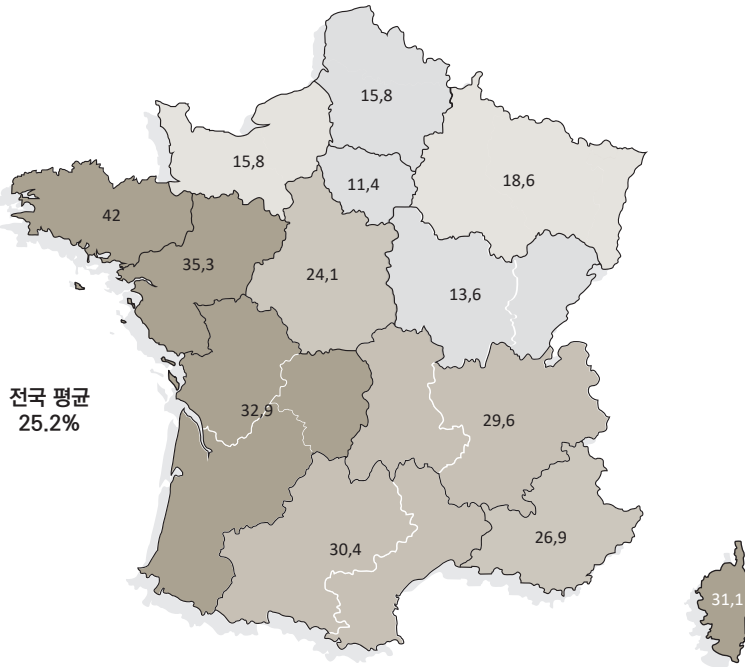
[그림 3] 2019~2030년 예측 시나리오에서 2030년 지역별 잠재적 불균형(2019년 고용의 백분율)



자료 :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2022), “Les métiers en 2030 : projections France Stratégie/Dares, à partir des enquêtes Emploi”, <https://www.insee.fr/> (2023.7.26).

2)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Les métiers en 2030 : quelles perspectives de recrutement en région ?”, <https://www.insee.fr/> (2023.7.26).

[그림 4] 2030년까지 지역별 긴장 상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 비중
(2019년 고용 대비 비율)



자료 :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2022), “Les métiers en 2030 : projections France Stratégie/Dares, à partir des enquêtes Emploi”, <https://www.insee.fr/> (2023.7.26).

큰 지역의 전문직 노동자의 유입이 잦지만, 전국 평균보다 청년층이 이 지역에서 일을 시작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잠재 노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밀도가 낮은 내륙 지역인 그랑데스트와 오프드프랑스는 전국 평균보다 일자리 창출이 적어 불균형이 덜 두드러진다. 마지막으로 중북부에 위치한 프랑스의 수도권이자 중심인 일드프랑스는 청년층 유입이 잦지만, 대서양과 지중해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더불어, 이처럼 노동 수요와 예상되는 잠재 노동력 사이의 불균형은 채용을 둘러싼 긴장 상태를 심화시킬 수 있고, 특히 프랑스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 2030년까지 구인난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보고서 2030」의 지역별 고용 현황은 국가·지역 차원에서 고용 및 교육 정책을 강화해 지원하기를 도모한다. 또한 정부는 앞서 살펴본 잠재 노동력 부족 문제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하고자 한다. 직업 훈련과 교육은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 노동 수요와 노동 요구 사항을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며, 민간부문 기업 채용 담당자, 사회적 파트너와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KLI**